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21일 묵상



소개

이 묵상집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당신이 볼 수 있게 돕도록 디자인 되었다:

-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심

각 주제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었다. 여기 나눈 것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이 광대한 실제의 전체 그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주 소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묵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애정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들로 표현하신다.





1 일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화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호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5-8)

하나님은 결혼 서약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다. 행복한 평생의 결혼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우주적 열정처럼 보인다. 선하고 신실한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갈망은 우리 인류의 깊은 곳으로부터 샘처럼 솟아오른다. 러브 스토리는 젊은이나 연장자나, 남자나 여자 모두 동일하게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그와 같은 열정적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신다. 너를 만드신 분은 너의 남편이란다! 이 선포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하다! 모든 것의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다고

서약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편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힘이자 보호자이자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오해하길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분의 분노는 오직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순간적인 징계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헌신과 열정의 한 부분이다. 구속자 되신 주님은 ‘큰 자비로,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고 말씀하신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십니다. 올리브 나무이신 메시아 안으로 우리를 접붙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업을 공유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그분의 신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신랑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엡 5:25).

아버지, 성령으로 유대 민족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홀로코스트 때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지라도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2 일

약혼녀를 향한 약혼자의 영원한 첫사랑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19-20)

약혼과 견줄 만큼 흥분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은 약혼식이 가까워짐에 따라 하늘로 치솟는다. 상호존중과 열정적인 갈망, 그리고 순수한 기쁨이 미래의 신랑과 신부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들은 신선함과 순결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합쳐진 독특한 무언가를 경험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집중되어서 그들 주변은 보이지 않게 된다. 더없이 행복한 사랑의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려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녀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의 약혼을 약속하셨다. 그분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하게 했다. 받을 자격 없는 과분한 그분의 끈질긴 애정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연인들을 떠나 오직 그분의 것이 되길 원하신다. 이스라엘은 거절받지도 않았고 자격이 박탈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은 사랑받고 있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사랑받는 자다. 영원히!

하나님은 약혼의 언어로 그분의 감정을 표현하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에 싫증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짐으로 느끼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의무감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마지못해 지키려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분의 신부에 대해 열정적이지 않다. 그분의 정복하는 사랑은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망도 뛰어 넘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아주 소중하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떠나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또한, 그분은 낯선 외부인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의와 굳건한 사랑과 자비의 나라로 이끌어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변화될 것이고,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과거가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밝은 미래를 여실 것이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강력한 감정들로 아버지의 열정적인 애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유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새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할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몸에게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긍휼과 담대함을 주세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전할 많은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3 일

아기를 향한 엄마의 온유함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14-16)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으로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예루살렘에 표현하신다. 엄마는 입맞추며 사랑하는 아기를 잊어버릴 수 없다. 엄마는 아기의 배고픔과 울음에 무관심 할 수 없다. 그런데, 혹시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돌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시온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하는 엄마의 온유함과 관심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시온,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새겨졌다. 이 선포는 골로다에서 못박히신 메시아의 손을 볼 때 온전히 이해된다. 예수님은 첫째로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죽으셨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관심과 돌봄의 중심이다.

각 사람은 독특한 지문과 손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쓰여진다. 시온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다. 그분은 자신을 예루살렘에 연결하셨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이 누구신지와 그분의 정체성을 표현해 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분리될 수 없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의 시온을 향한 변함없는 온유한 돌봄으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이스라엘에 묶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은 지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눈에 시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스도의 몸에 보여 주시고 우리를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온유함으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부드럽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아버지의 성품을 계시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4 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4:22-23)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장자임을 선포하셨다. 그때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번성하던 때였다. 하나님은 그분이 국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임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한 개인이 아닌 민족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무리에 대한 그분의 아버지됨을 비개인적이거나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과 바로의 장자 사이에 선을 그으셨다.

동네에서 괴롭히는 아이들을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또다른 학대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아들(야곱의 아들들)에게 행해지는 범죄를 더 이상 참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고한 피가 흘러지는 것에 대항하여 일어나셔서 이집트의 살인적인 정치를 멈추셨다.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더 이상 학살을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의 장자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녀들)를 살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네가 계속 한다면, 나는 너의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네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했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을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건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음을 배워야 했다.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것은 가족의 일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장자를 막아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국가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장자를 위해서 일어나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메시아의 몸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품게 되고,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 할 수 없음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그들이 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같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전 세계 믿는 자들이 동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반유대주의와 맞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5 일

그 아들을 안는 아버지처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 1:30-33)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잘 보살피는 아버지의 언어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다. 좋은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우주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길을 이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사막에서 도움 없이 떠돌아 다니도록 아들을 보내지 않으신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셔서 자녀들을 보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자녀들을 먹이로 삼지 않도록 지켜 보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장자가 사막을 더 걸을 힘이 없을 때 그분의 어깨 위에 그를 안아서 걸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장막 칠 장소를 찾으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아버지로서의 돌봄을 표현하심으로 그분의 감정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식하시며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신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무관심

하시지도 않다. 그분은 부재한 아버지와는 정반대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지속적으로 주신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돌봄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줍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지친 자들을 도우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백성들 앞에 미리 가서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는 그들과 동행하는 것과 안전함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것을 즐기십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돕는 손길을 거절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고, 그들이 아버지 없이 가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슬픔니다.

아버지, 유대 민족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고 싶어 갈망하시는지를 그들로 알게 해 주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연결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에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부드러운 돌봄을 알게 해 주세요. 장자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전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6 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다

“여호와와 그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9-1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깃이다. 야곱은 그분의 유업이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가! 이것은 소속감에 대한 놀라운 선포다!

우리는 그분의 분깃이고 유업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 이상의 가장 큰 선물로 여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부유하게 하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석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분의 보물이다. 이 얼마나 강력한 선포인가!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얼마나 환상적이고 확고하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본다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다. 야곱이 열악한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그분의 주의깊은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감싸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지키셨다.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민감하며 소중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겪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직접적으로 주님께 영향을 준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고 모든 단계에서 지원하여 훈련시킴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야곱이 도움이 필요할 때 마다 인내하심으로 그들에게 힘과 도움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받아 주신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유업이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얼마나 가깝게 지키시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돌보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의 유업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당신의 눈동자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알게 해 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해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감정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 주세요. 유대인들을 사랑과 기도로 감싸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기회들이 열릴 때 그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에 그들과 함께 서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7 일

이스라엘의 선한목자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11)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드럽게 다루시는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목자로 그려져 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러한 행동은 즉각적으로 쉽게 이해 될 수 있었다. 이 언어는 그들의 일상의 경험과 매우 친숙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행동에 반영된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각각의 동작들이 인내와 너그러움과 영혼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을 내면으로부터 알았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모든 양들을 공급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양들을 향해서 특별한 애정으로 대하신다. 그분은 연약한 양들을 특별히 돌보신다. 그분은 취약한 양들을 압박하지 않으시고 안고 가신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신다. 그분은 방어능력이 없는 자와 연약한 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더 많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대신 지신다. 리더의 마음은 작은

자들을 돌봄으로써 표현된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너그럽고, 온유하며, 낮은 곳에 거하신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33:12)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온유한 돌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작은 자들을 자상하게 다루시며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연약한 자들을 자신의 팔에 환영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깝게 안아 주십니다. 아버지의 돌봄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계시합니다.

아버지, 유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온유한 애정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세요. 그들이 아버지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을 왜곡시키는 거짓들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를 선한 목자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육체로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낸 분으로 아버지를 보게 해 주세요. 그들을 아버지의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매료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두 번째 주 소개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할 것이다.





8 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7)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19)

하나님은 그분의 친구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언약은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분 자신을 묶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분의 이야기에 대한 중심 맥락이다. 이 언약적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을 하셨는가?” 뒤에 숨겨진 “왜 하셨는가?”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그분을 반항하고 거절할 때에도 그분의 백성을 계속해서 구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훈육은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에게로 부르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곁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쫓으시고, 그들의 완고한 불순종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인 심판의 막대기를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또 다시 그분에게 돌아와 환영받길 고대하신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대를 거듭한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신실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맺은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의 전 세계적 교회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세요. 아버지의 친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한 가운데 야곱의 자녀들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의 몸이 보게 해 주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믿는 자들을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신실함에 대한 명확한 증거인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훈육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옛 언약 백성들에 대한 아버지의 다루심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 주세요. 아버지가 몇 세대에 걸쳐 그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신 것을 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9 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애굽기 3:13-15)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정의하셨다.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요 절대자시며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시다. 그 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밝히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선언을 끝마치셨다. 이것의 문자적 근접성 때문에, “이는”은 “야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둘 다를 언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외에는 누구도 그분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야훼”로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언약을 맺은 친구들에게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리길 선택하신다. 만물의 창조주, 우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친구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알려지길 원하신다. 출 3:15 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들과 맺은 관계와 언약을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시며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창조주”도 아니고 “정의할 수도 없이 높이 계신 분”도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은 그들의 창조주와 살아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길을 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분의 친구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길 원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알려지길 원하신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인 야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유명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실재로 그들을 일깨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아버지의 것임을 그들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그리고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는 시도들에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적 교회가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적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10 일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9-11)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백성들과 그분의 언약을 맺은 직후,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길 원하셨다. 우주의 창조자, 전능하신 분, 스스로 계신 자가 그 백성의 이름을 가지시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가! 이 얼마나 강력한 연합의 선언인가! 이 얼마나 깜짝 놀라운 사랑의 선포인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신부가 결혼 언약을 통해서 신랑의 이름을 취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의 이름을 취하셨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은 영원히 연결되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다. 그분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과 신성이신 그분 자신을 연결시킬 준비가 되셨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충만하게 입증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공유하신 분이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알리기로 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역하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갈망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제안을 붙들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더 심오한 계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언약적 약속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존귀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언약에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신지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세요. 그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전 세계적 교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따르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11 일

하나님은 야곱과 다윗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신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3:23-26)

이스라엘을 거절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몇 세기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 추방과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다윗의 보좌 위 왕의 부재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의 위기를 가져왔다. 과연 이런 역동적인 사건들이 ‘그분의 백성이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끝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은 그분의 언약들은 그분이 우주의 질서를 세운 것 만큼이나 강력하다. 밤과 낮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과 땅의 질서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창조 질서 안에 불변의 우주 법칙을 세우신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은

그분의 언약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남아 있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메시아의 보좌 위에 영원히 앉으실 것이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말씀에 진실하시고 자신의 약속들에 신실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세우신 언약에서 자신의 부분을 항상 지키십니다.

아버지, 유대 민족이 아버지의 언약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이 경험하는 비극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실함을 보기를, 그리고 참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알게 해 주세요. 아버지의 언약의 든든한 기초에 믿음의 닳을 내림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12 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33:14-17)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신실하시다. 그 선한 일은 다윗의 집에서 의의 한 가지가 자라는 것, 곧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에 이 약속을 성취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요약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누가복음 1:68-72)

전체 스토리는 하나님과 그분과 언약 맺은 백성들을 주변으로 해서 중심축이 돌아간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다윗 왕과 그의 보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있다. 다윗의 자손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조상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또한 만왕의 왕은 그 도시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줄거리를 취하신다.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님께로 모여있고 초점이 향해 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소외되지 않았고 과거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분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인해서 그분의 아들을 높이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구원받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과 약속에 연합된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아버지의 언약으로 인해,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실 신실하심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다윗의 집에서 의의 가지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대함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심판과 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길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이라 외치게 되는 것을 보길 갈망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 교회가 아버지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까지 역사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열방의 구원자이시기에 마지막 때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교회가 보게 해 주세요.

아버지, 유대 민족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할 더 많은 메신저들을 불러 주시고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미 유대 민족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기쁨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롬 10:14-15).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일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31 - 34)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신다. 열방이 이것에 접붙임 받는 특권을 받지만, 그들은 처음 언약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맺은 언약에 합쳐진 것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중에 언급한 새 언약은 본래 교회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구약에서 찾을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약속이다.

새 언약은 모세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실패한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지만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포기하시지도 않는다. 그분은 둘 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교체하시지 않고 그들의 의로운 삶에 대한 그분의

갈망을 바꾸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율법의 의로 행하도록 그들을 강건케 하는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신다 (로마서 8:4).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죄 사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세우실 것을 맹세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므로 이스라엘 집이 내면으로부터 그분을 알 것이라 확증하셨다. 이것은 곧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 판에 새길 것과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보증하셨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새 언약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공해 주시는 아버지의 너그러우심으로 인해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열방의 믿는 자들이 이 놀라운 언약의 한 부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초로 용서를 세우심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죄사함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눈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대 민족의 눈을 열어 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새 언약이 그들에게 속한 것임을 보게 해 주세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인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로 발견하게 해 주세요. 그들이 “내게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14 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6-29)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전체 국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을 명확히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 모든 나라들 전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장자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그분의 언약에 대해 영원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 가장 감정적인 회복을 준비하셨고, 이것은 특별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못박은 분을 보게 될 것이다 (스가랴 12:10).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임시적으로는 복음의 적이 되었지만, 선택받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사랑받는 자인 것을 진술했다. 그들의 반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선택된 민족으로 남는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그분의 언약이 영원한 것이기에 변경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불신도 그들의 은사와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다. 이 약속은 처음에 그리고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위기에 처한 그들의 역할과는 상관이 없다.

구속사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확실성이 교회를 수동성의 올라미로 유인해서는 안된다.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복음을 나누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와 환상, 그리고 천사 방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꿈과 다른 초자연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에게로 이끌려지고 있다.

노트: 사도바울은 로마서 11:26-29 절 말씀에서 이사야 59:20-21 과 예레미야 31:31-34 을 언급하고 있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구속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 받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약속과 함께 서며, 동의하고, 아버지가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길 구합니다. 현 세대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수할 들판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을 이스라엘 동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한 이스라엘 안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기쁨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 교회가 이스라엘의 은사와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목상노트

세 번째 주 소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것이다.





15 일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돌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편 132:11-14)

하나님은 시온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로 이곳을 갈망하셨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분이 그곳을 갈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시온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살고자 갈망하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곳을 영원한 그분의 안식의 장소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은 구별된 장소들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와 출애굽의 사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나타나셨다. 그 다음해 동안,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어떤 이들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신관이 천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기 힘들어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가지 감정, 갈망, 방법, 그리고 그분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보여준다.

유명한 잠언 중에 ‘집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은 한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한 도시에 거하신다. 예루살렘은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희생제사가 드려진 곳이고, 다윗의 도시와 보좌가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절기 동안 예배자들의 무리가 모이던 성전이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이곳에서 살리셨으며, 성령이 처음으로 부어졌던 곳도 이곳이다. 미래에 예루살렘은 다른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적그리스도 군대가 짓밟히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특별한 사랑을 품고 계시며 그분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기로 선택하셨다. 영원히.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자신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와 무엇이 아버지에게 소중한 것이고, 아버지가 느끼시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을 알아 가는 것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선택에 정령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122:6).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당신의 마음과 목적을 이해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적용노트



16 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로 불릴 것이다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3:17)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그분의 임재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비록 그의 시대 때에 죄로 가득찬 것을 보고 애통하였지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불리게 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로 알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데, 그로 인해 그들은 악을 거절할 것이고, 죄는 더 이상 권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쉼카이나 영광이 성전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위에 그분의 정부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반항해서 선지자들에 의해 책망받았던 예루살렘이 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정을 보이시고 예루살렘을 능력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고 모든 열방은 그분의 보좌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특별히 품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과 그들이 이 도시로 실제로 올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정부에 순복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주권적 선택에 정렬될 것이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부터 해방 받을 것이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로 불릴 것입니다. 아버지의 질투하심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지키시는 사랑의 트로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온 땅 위에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하시는 도시 예루살렘의 영광스런 미래를 보게 해 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질투하시는 사랑이 죄된 도시를 어떻게 영광의 장소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자들과 그들의 반항 때문에 예루살렘을 없애 버리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형상으로 그들이 변화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17 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1-5)

하나님은 시온을 향한 그분의 열정적인 애정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광채나게 빛나길 갈망하신다. 그분은 시온의 구원이 불타는 횃불처럼 빛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에 헌신하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너무도 기뻐하시기에 모든 왕들로 하여금 시온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시온을 향한 그분의 큰 기쁨은 개인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 것이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열방에 드러내시기를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있게 그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모든 손님들에게 보이려 했던 것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새이름으로 부르실 것을 약속하셨다. 시온은 더이상 “버림 받은 자”라고 불리지 않고 “나의 큰 기쁨”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더이상 “황무지”로 불리지 않고 “결혼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의 이 사랑을 묘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모든 정결과 거룩함이 있는 러브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시온에게 예언적인 칭찬과 생명을 주는 칭송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시온이 영광의 면류관과 그분의 손에 있는 왕관의 보석이 될 것임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하고 예외적으로 예루살렘을 자랑하신다. 그분은 시온의 아름다움을 선언하시고, 시온을 왕비같이 대우하신다.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시온을 기뻐하신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의 의가 밝게 빛나는 것을 보시길 원하시며 갈망하시는 아버지의 헌신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온의 이름을 “버림 받은 자”에서 “나의 큰 기쁨”으로 바꾸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의 의가 비취지길 기도합니다. 시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버렸다고 느끼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그들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18 일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웠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6-7)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 중보자들과 동역하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것은 그분의 본성과는 상반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에 그분의 자녀들이 참여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나누는 것과 이 땅 위에 그분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중보자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주야로 그분에게 외칠 헌신된 파숫군을 필요로 하신다. 전 세계에 예루살렘을 위해 있는 중보자들의 그룹은 24/7 대기 중이다. 그들은 주야로 시간이 가능해야 한다. 그들의 임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된다.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는 24/7 기도의 집을 세우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파숫군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나는 주야로 너의 목소리를 듣길 원한다. 내가 세상에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부끄러워 하지 말고, 나의 고요를 방해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를 깨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라. 너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위한 주야 중보자들 사이에는 독특한 협력 관계가 있다. 그것은 중보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상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시온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중보자들과 동역하심을 인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한 일 억 명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전 세계적인 교회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운명을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와 협력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24/7 중보와 예배를 하는 기도의 집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합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과 목적에 동역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신저들을 부르고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기적과 이사로 그들의 간증을 확증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19 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빨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못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 66:10-13)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은 그 도시와 함께 즐거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고통의 아픔을 나누면서 그들은 그 도시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나라가 침공당해 고통받은 군인들은 자유의 날에 가장 기뻐하는 자들일 것이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고난의 시간에 사랑하는 도시와 함께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목격하게 될 때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받게 되는 위로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젖먹이 아이처럼 평강과 고요함을 발견케 됨으로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진지하고 심오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아픈 이후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는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도시의 충분한 평강과 계속되는 축복과 넘치는 번영을 보게 됨으로써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준비하신 넘치는 위로를 보게 됨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위해 느꼈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위로가 오게 될 것임을 명확히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내면의 실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아이를 위로하듯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온유함을 묘사하기 위해 모성애의 언어를 사용한 드문 구절이다. 위로가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고 말씀 하신다. 예루살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자들에게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놀라운 온유함으로 인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고통으로 인한 그들의 싸매어 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들과 또한 사랑하는 도시를 넘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도시의 눈부신 영광과 번영을 볼 때 감당치 못하게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전 세계적인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독특한 장소를 볼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몸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깨진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들의 메시아로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20 일

주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사야 60:1-5)

하나님은 예루살렘 위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은 그 도시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추도록 만드실 것이다. 주님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은 그 도시 위에 보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극명한 대조가 있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때에 땅에 사는 자들이 흑암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이다. 열방은 하나님의 광채를 투영하는 예루살렘을 증거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할 것이고, 태양 빛이 밤에 달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땅에서는, 예루살렘이 빛처럼 떠오르게 될 것이고, 왕들은 예루살렘의 광채로 인해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이다. 멀리 사는 자들도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의 연합을 지휘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오랜 부재 뒤에 자신의

자녀들을 모으는 엄마와 같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마음은 기쁨으로 들떠서 감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열방의 금, 향, 낙타, 양 그리고 무료 노동력 등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에 아버지의 영광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기에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빛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교회에 예루살렘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필수적인 것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에 중요한 것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21 일

예루살렘, 큰 왕의 도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34-37)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큰 왕의 도시임을 선포하셨다 (시편 47:2; 48:2; 95:3; 말라기 1:14). 큰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특별한 지를 확증하셨다.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와 구별된 주님의 도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다. 이것이 전 세계가 매일 중동에 있는 이 작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유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부와 권력, 더 많은 자원들, 그리고 더 많은 혁신들을 가진 메가 도시들도 이러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열방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셨다 (에스겔 5:5).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사람의 마음 속에 열정을 불러 일으킨다. 예루살렘은 몇 세기 동안 격렬한 전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 도시는 파괴되고, 몇 차례 완전히 몰락했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또 다른 전쟁의 중심이 될 것임을 가르쳐준다.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녀를 공격할 것이며,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건져내시고 고대 때부터 그분의 백성되었던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나의 시온에 세웠다.” (시편 2:6)고 선포하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기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의 도시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심에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도시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거룩한 산 시온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버지의 마지막 때 계획의 중요성과 아버지의 뜻에 동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 받을 때까지 (이사야 62:6-7) 예루살렘 성벽 위에 주야로 중보하며 외칠 파숫군들과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묵상노트

Pierre Bezençon (pierrebezencon@ihopkc.org) / Israel Mandate / IHOPKC 

저자: 피에르 베젠콘 선교사
번역: 이스라엘 박 선교사